東亞日報
夕刊 八月五日(月)
編輯兼發行人 宋鎭禹
印刷人 黃汝穆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 光化門 一九〇〇
代替口座 京城

國民의奮起를促進 에、大示威運動擧行

開戰되면、아戰爭當時와같이 伊國軍의殲滅을計劃

【아디스아베바四日發聯合】 時局가더시내는데따라서에치오피아國內의與論은 漸日强化되고 時局 에치오피아帝國政府當局은 四日午前을期하야 國都아디스아베바에서 大示威運動을 擧行하고 全國民의 奮起를 促하엿다 이示威運動에는 一八九六年三月 아도아戰에서伊太利軍에 壞滅的打擊을與한 老將士五六名도 當時의軍服과 小銃을가지고 參加、先頭의行列에서서 伊太利軍에 對하야 아도아戰當時와 같이 壞滅的打擊을與하라고 激勵하엿다 一方 에치오피아軍中에서 勇猛이라는 西部戰線地方의 精銳部隊 ... 五千을 率하고 四日國都의 近郊로 ... 에시오피아軍은 彈丸을 두려워하지안코 祖國을 爲하야 鮮血을 흘리기에 躊躇안는나 山上에外國旗가 翻揚하는것을 斷然不許할것이나 아戰爭當時와가치 伊軍이 根據地를 出發하야 進步行進을 開始하고 三週間만에 國都에 到着하엿는데 ... 一도 目的地에到達하지못하엿것이다 (寫眞은에軍將兵)

英伊間抗爭表面化 무人트氏批評

【電通倫敦四日發】 英國敎會의 타이지스 포스트氏는 理事會의結果를 批評하야 이제 伊에間의紛爭의 重要性은 舞臺外에서 버서나 英伊間의抗爭으로 表面化되엿다 라고 評하엿다

伊에開戰되면 兩軍이取할進攻路 外交官側의豫測

【電通아지스아베바四日發】 當地外交官側에서는 伊에開戰되면 伊軍이 採取할 進攻路에 對하야 如左히豫測하고잇다 ...

紛爭解決決議와 伊國側意向

【로마四日發聯合】 聯盟理事會의 決議採擇에依하야 伊에紛爭의處理는 이제一個月 延期하게되엿는데 이에對하야 伊國側은 如左히 觀測하고잇다 ...

不敬記事揭載問題 齋藤大使抗議

【電通紐育三日發】 米國뉴욕서 發行하는 雜誌바니치ᆞ페아七月號에 日本皇室에對한 不敬記事가 揭載되어잇는것을 內務省에서 發見하고 即時外務省과 相議하야 外務省으로부터 三日뉴카나에 滯在中인 齋藤大使에게 通達하엿 ...

問題의떠아紙 上筆談

【紐育三日發聯合】 不敬事件을 이르킨問題의 떠아社主幹 인시트氏는 三日日本의 抗議報道에對하야 如左히辯明하엿다 ...

米、富再分配案 下院通過될듯

【電通華盛頓二日發】 米國下院에서 審議中이던 富再分配 課稅案은共和黨의 審議引延策에 依하야 審議遲延을 免치못할 形勢에잇든바 聯盟決議案의 修正도 終了되어 마도五日에는 下院을 通過하고上院에回附될모양이다

倫敦豫備會商繼續을 英國政府에서決意

目的貫徹은至難할듯

【電通倫敦四日發】 英國政府는 海軍軍縮會議를 今年末까지에 開會할方針을 依然堅持하고 準備工作의 促進을 期하고잇는데 米國政府는 多難한 會議의決裂될 境遇에잇어서의 責任을 負할것을 두려워하야 ...

各省新規要求 十億突破 大藏當局苦心

【東京電話】 明年度各省新規要求額은 今日까지에 判明한바에 依하야 보면 (單位百萬圓)

外務省	
司法省	
拓務省	
遞信省	
商工省	
海軍省	
陸軍省	
內務省	
農林省	
文部省	
大藏省	

伊國大型飛機 上海에到着

近間蔣氏에게贈呈

【上海四日發】 四日午後三時卅分 上海虹橋飛行場에到着 在留伊太利官民의 盛大한歡迎을 受하엿다 ...

政黨解消聯盟主로 松岡氏聲明을發表

【電通東京電話】 政黨解消聯盟의 盟主인松岡洋右氏는 四日午前九時 ...

豫算編成難으로 內閣、危機에直面

北鐵委任統治問題로重視

第二의北中事件突發?

灤州事件에關하야 軍側重大決意表明

◇即時中國首腦部와會見

【電通北平五日發】 灤州事件突發北平에 來하야 軍事委員會首席代理 鮑文樾、政務整理委員長代理 王克敏에 對하야 ...

【電通天津五日發】 灤州事件은 ...

聯盟和協工作不拘 伊、東阿에戰備擴充

今月末까지에內外各地에서 廿五萬人至急動員

【羅馬三日發】 聯盟理事會의決議로 伊에和協解決이 ... 伊國政府는 依然 東阿植民地의 戰備充實을 ... 合計約二十五萬人에 至急動員令을 發하야 東阿에 出動시킬 豫定이다

理事會採擇된 決議案內容

【제네바三日發聯合】 聯盟理事會에서 採擇된 理事會決議는 如左

第一決議案

一、和協委員會의 機能에 關하야는 五月廿五日의 理事會決議에 ... 任을 決定

第二決議案

一、理事會는 事態의 如何를 不問、九月四日 再開、伊에 紛爭問題의 全面的檢討를 行함

理事會의成果는疑問

【電通제네바三日發】 戰爭을否延期할뿐 ...

全米勞働總同盟에서 蘇聯承認取消를要求

共産主義者의演說을責하고

【워싱톤三日發聯合】 先般莫斯科에서 開催된 共産主義者第三國際大會에서 米國共産黨代表의 演說에 對하야 ...

蘇聯側關係를否完

【莫斯科電】 ...

橫說竪說

...

컬럼비아 蔡·美二大歌手컴비로된 힛트盤 再現!!
流行歌 아득한千里길 故鄕을차저가니 蔡奎燁 姜弘植

레코-드 四〇六二
컬럼비아레코-드

南大門自動車學校 學生募集 (改訂學則要二錢付)

우리朝鮮人本位의唯一한
速修 英語講義錄
英語通信研究會

東亞日報內資洞購讀請求所

大阪着名問屋案內
錢入袋物現金問屋 廣島屋本店

オリムピア 蓄音器

蓄音器、蓄針、附屬品 大勉强卸問屋
日本オリムピア蓄音器商會

活字活字 製造元
西本商店

ポンプ・精米機 噴霧器・製粉機
有光製作所

眼鏡、袋物、バンド 製造卸問屋
島田商店

シレネギター

中井樂器店

團成社 / 朝鮮劇場 / 優美館

滿洲大量移民과並行 內蒙地方에도移民

收容할土地는二萬四千餘天地

實現은느저도明年부터

二백만의 조선사람을 만주로이 [illegible] 원활안은 사척진행되고 잇어 [illegible] 실행에관한 기관을 이민회사(移民會社)를 설립하야 대행케 하고 저 총독부로서는 안을 매월고 이 안을 관계각성과 방금 협의중에 잇서니와 이와 병행하야 내몽(內蒙)방면으로도 내왕의 이민계획을 세우고잇다한다. 그리하야 이미 내몽지방부서에 二만四천四백천지 수 八백二十만평의 토지를 입수하엿다한다. 이와같이 광범한 토지까지도 입수하엿으므로 총독부에서는 명년도에 이내몽이민도 실현하리라하야 주목을끌고 잇다.

支離한 장마따라 傳染病魔大跋扈

昨一日發病만十二名 脅威받는四十萬府民

장마철을 보내는 부내의 전염병은 작금의 개이지안는 장마철을 당하야 더욱 창궐하고 잇다. 四일 하루동안에 부내에서발생된 전염병환자는 적리(赤痢)七명, 장질부사(腸窒扶斯)四명, 「디프테리」一명 모두 十二명이라한다. 이를 각동별로 보면 적리는 명치정(明治町)二정목, 약초정(若草町), [illegible], 통의동(通義洞), 송림동(松林洞), 행촌동(杏村洞)에 각一명, 장질부사는 어성정(御成町)一명과 [illegible] 죽첨정(竹添町)三정목, [illegible]에 각一명, [illegible] 인중의一명, 「디프테리」는 영정(榮井町)에 一명이엇다.

부내돈의동(敦義洞)一四九번지 김운선(金雲仙)(八)을 치어 바른편발에 중상을 지엇다. 피해자는 시시 적십자(赤十字)병원에 입원하야 응급치료를 받는중인데 바른편발이 부러젓기 때문에 전치二개월을 요하리라한다.

동무問病간새 少女또失踪

壽洞公普의十二歲된女學童

警察이아수색中

小사건후 소녀들의 실종사건이 빈발하는 작금에 四일오전八시경 부내가회동(嘉會洞)三十번지의二호 노동자 차기현(車基鉉)의 [illegible] 수동공보교(壽洞公普校) 생도차정길(車貞吉)(十二)이가 부내관철동(貫鐵洞)[illegible]의 병문안을가려고 갓새 종적을 모르게 되엇다한다. 그리하야 그의 부모들은 [illegible] 경찰에수사원을 제출하야 [illegible]에서는 방금 그의 수색을 하는 중이라한다.

漢江에美人屍體

손에 금반지까지 끼고 投身

住所姓名을아수없이

四일 오후六시경에 인도교아래에 나이二十四、五세가량되어보이는 여자의 시체가 발견되엇는데 룡산서에서는 경찰의를 대동하고 검시한바 四、五일전에 빠지어죽은것으로 추정되고 손에는 금반지를 끼고 잇는것으로보아 상당한 가정의 여자로서 비인이아니라 한다. 수족은 아직도 알수없다고 한다.

自轉車가轢人

[illegible]

本社主催巡廻講座

—光州·咸興·南浦·淸津의盛況—

全京城庭球連勝

對日本選拔軍第二戰

全日本各都市로부터第一級의 優秀選手를 選拔한代表軍을第一戰에 擊破한全京城軍은 第二戰에 또第一라운드에 [illegible] 第二라운드에 [illegible] 이겨서 快히 連勝를傳하고 全日本軍은 一敗로 가게되엿다.

【全京城】 【全日本軍】

第一라운드

[illegible]

【第二라운드】

[illegible]

文理大對全朝鮮

五千米에柳君二着

全朝鮮陸上競技協會主催 東京文理科大學對全朝鮮對抗陸上競技大會는 四日午後二時半부터 京城運動場陸上競技場에서 擧行

◇百米 ❶吉岡(文理)十秒 [illegible]

[illegible]

이리야 總得點 文理大 [illegible] 朝鮮 [illegible] 로 文理大勝利.

普專蹴球北滿遠征隊

하르빈팀을이기

連戰連勝에빛나는戰績

朝鮮普專蹴球界의 花形普專蹴球隊의 北滿遠征의 消息은 在哈爾濱朝鮮人士의 [illegible]

[illegible]

【普專】 【哈軍】

李相亮	GK	黑
朴	RF	가이로
洪	LF	오도우프리프
李	RH	에프로프
金	CH	라바스모프
文	LH	미니에프
朴	RW	프로노프
裵	RI	[illegible]
高	CF	카누소프
吳	LI	샤리모프
張	LW	[illegible]

全京城이二勝

都市對抗野球戰

【東京電話聯合】 [illegible] 都市對抗野球戰은 觀衆과選手모두가 大緊張裡에 第二日을 맞잇는데 奉天、大連等 外地軍은 戰運不利하다. 今日의 最後戰인 京城對千里戰은 [illegible] 下에 千里先攻으로 午後三時二十五分 戰端開始 新進千里軍 猛烈히 肉迫하엿으나 古豪京城軍이 六A三으로 勝捷하엿다. (開戰 五時十一分 試合時間 一時四十六分)

東京3A 臺南0

【東京電話聯合】 日本都市對抗野球戰三日은 五日午前十時半부터 [illegible] 에서擧行、東京俱樂部對臺南戰은 午前十時二十五分부터臺南先攻으로 開始 [illegible] 三A對零으로東京勝. (開戰 [illegible])

獅子庵에拳銃?强盜

僧侶八名結縛强奪

온실아이다뒤저돈三원탈거

始興署犯人二名探索

五일 오전一시경 시흥군 동면 사자암(獅子庵)[illegible]

[illegible]

楚山對岸에反滿軍出現

【경무국사전】 三일 오후 三시 안동현(安東縣)에 거주하는 만주사람변해 [illegible]

[illegible]

被害家屋五百餘戶 二百名은風餐露宿

집일코먹을것없는불상한情景

安東水害와在住同胞

【안동현】 이번 대수해는 [illegible]

▲新市街浸水家屋 朝鮮人四百八十六戶 日本人一百四十二戶 滿洲人一千六百二十七戶 合計一千五百四十一戶

▲舊市街浸水家屋 朝鮮人二百十二戶 日本人三十一戶 滿洲人一萬一千六百九十九戶

[illegible]

鐵橋를지내다 老婆二名轢死

機關車에치어絕命

三일 오후七시반경 [illegible]

毒餠가지고 本夫를謀殺

[illegible]

망사주마誘引 大金갓고高飛

[illegible]

婦人네注意하오

車票로詐欺한少年

[illegible]

少年窃盜團 電車타고遠征

本町署員이붓잡으려할때 一名은投下타가重傷

四일 오후八시경 본정서(本町署) [illegible]

失戀한百子가 流浪끝에自殺

[illegible]

反滿軍巨頭가 警佐로變裝

部下廿騎데리고避身햇다가 三江好의新逍甲法

[illegible]

同進會臨總

[illegible]

天氣豫報

[illegible]

今夜、英艦隊演奏

[illegible]

各地天氣實況

八月五日現在

[illegible]

來七日부터食館開業

一、和式 洋式 即席料理

一、冷房裝置夏節料理

一、東京 大阪式 壽司、酒立飮

一、淸雅한房室、珍味無類

一、近代式豪華宴會場

一次試食하시면其眞實과現代的이오實質的인것을아시겟스니家族同伴하시든지또는宴會에利用하야주시옵

開店

電本四六八四

旭 食館 あぼぐらん

全鮮各地特約店 更新大募集

燈火用石油에는 地球票와 發動機油에는特製三角山動力油가第一

金剛山票가第一

朝鮮商藥

桐箱入 瓶入

환신령

誠과情을다한 暑中선물로 桐箱入(五十錢) 瓶入(一圓)

령신환이 近來盛히利用됩니다

胃腸病이만흔 녀름철에가장 適切하며또는 健康을비는代言者가되는까닭입니다

本舖 京城黃金町二丁目 朝鮮賣藥株式會社

學藝

文壇·肅清과 外國文學輸入의 必要

(三)……丁來東

個性至上主義者의 悲慘

各人各題

두개의 人間論

申南澈

모스크바劇場祭

(海)(外)(學)(藝)(뉴)(一)(스)

遊滿雜記

四…齊齊哈爾까지

申基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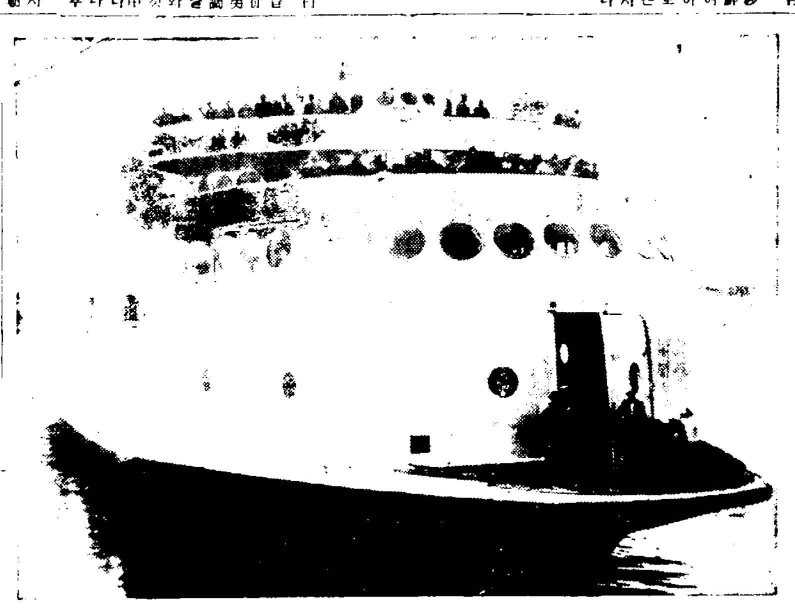
內蒙古의 入口라고하는

車窓으로

男子가危

落雷의瞬間을 高速度寫眞機로撮影

그동안 五千萬分의 一秒



流線型은나온배에도

多量

事에서나리

省政府와

大槪의氣

입은옷은

수박씨를

話題

國民政府主席林森氏의嗣子의로만스

江南夏夜散筆

故鄕벗에게보내는亂想

(一)

金光洲

稿料殘忍한人生

新刊紹介

▲三千里 八月號

오더라

八月五日(月曜)

八月六日(火曜)

第一放送 (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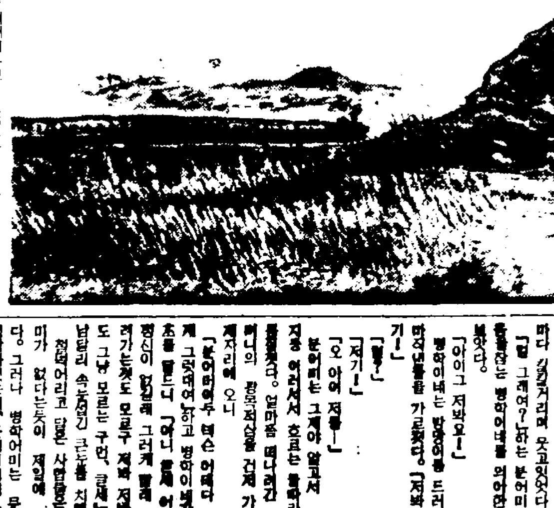
第二放送

貧婦記

(八)

朴魯洪 作

靑田 畵



第六回 全朝鮮 男女學生作品展

◆開會期間及場所
九月二十一日부터同末日까지
本社 三層大講堂에서

◆部別及出品種目
中等部 繪畫 習字 手藝品
初等部 繪畫 習字 手工品

◆出品期限 九月十二日까지
◆搬入場所 本社。平壤、大邱、咸興各支局

主催 東亞日報社

ClibPDF - www.fastio.com

八月號 新家庭

八大人氣의 豪華版

納涼特輯

納涼地帶는 어듸?

松波玉碎의 海雲臺 …姜大奭
松籟潮鳴의 月尾島 …洪曉民
明沙十里 自然美 …高永煥
釋王寺의 松林 …小白散人
前椒島의 하로 …崔永秀
松濤園의 情趣 …一石

五大約束

一、記事의 俗惡과 浮虛를 絶對로 避합니다.
二、剽竊, 杜撰은 勿論, 無斷再錄의 惡을 行치아니합니다.
三、따라서 執筆者와 寄稿家를 嚴擇합니다.
四、高雅한 趣味性 啓發을 「모토」로 합니다.
五、每號에 우리 古代의 것을 한둘씩 실으려합니다.

八月號懸賞問題
前月懸賞入賞者發表

여름의 魅惑!

萬里長空에 달만홀로 …金末峰
星宵 螢飛 …李軒求
반 딧 불 …吳一島
애처로운 魂昇天의 밤 …張德祚
燈 불 과 「옷」 …薛義植
밤 하 늘 …崔衡鍾

景山水의 이곳저곳

佛西國境의 피레니스 …尹潽善
獨逸의 金剛山 하르츠 …金俊淵
壯瀑 나이아가라 …崔承萬
傳說 어린 臨津江 …李秉岐
無限淸凉한 九月山風景 …安在鴻
大同江에 남긴 追憶 …吳基永

神貞皇后의 手澤 …桂史

女性時評 …月岩人

農繁期와 農村兒童
指定받은 貞信女校 …月岩人

蘇國女王메리의 最後 …金正實

★서울記者가 되어보니
□鴛鴦二字를 古時調 …

絶望의 노래 …張永淑

創作 절여 …金一出

옥수수에 혼난 이야기 …金永愛
여름과 新聞記者 …任鳳淳
扇子와 여름과 畫家 …李象範

SERVICE·EXTRA

文字의 變遷 …… 團體消息
漫筆·여름 …… 女性消息
여름의 畵報 …… 數의 神秘
小詩·幸福 …… 家庭笑話

女子天下의 濟州島 …李無影

磯邊淸遊의 한나절 …崔衡鍾

여름철의 花草 꼿는 法 …邊錫花
夏節의 衛生法
婦人家庭服製法 …任貞爀

오늘이 잇기까지

金今先、宋敬愛 두분의 成功談

숨막는 살림

● 慘憺한 農村婦女生活 …朴順天
● 夏休없는 家庭婦人 …崔晟昭
● 受話器를 이고앉어서 …尹仁愛
● 九十度 高熱의 作業室 …金順姬
● 먹고싶은 것은 冷水뿐 …嚴容順
● 불火爐를 옆에 끼고서 …박영자
● 잠시라도 앉어 봣으면 …金福實
● 싸도 끝없는 캬라멜 …李小女

暴殄天物의 收場 …沙雲生

第四回全朝鮮男女中等學校
懸賞音樂會合評記

拔齒手術에 對한 注意 …鄭保羅

❖ 實果料理
❖ 金言名句
❖ 珍虫애기
❖ 힘센動物
❖ 尖端美容
❖ 집이變해

쌍둥딸 기르던 이야기 …李萬珪

七月七夕과 其他 …金璇根

그림없는 그림책 …徐恒錫

世界政勢

英獨海軍協定
佛國對英不滿
富의 再分配案 …高永煥

옛말하는 獨座床의 由來 …松士閣人

氷山氷河이야기 …崔福鉉

재즈나 流行歌가 一般家庭에 끼치는 影響

社會敎化上弊害不無한 …… 洪蘭坡
敗亡。野卑 非人道的! …… 玄濟明
귀막아주고싶다 …… 金메리
道德的價値가 없다 …… 朴慶浩

誌代二十錢 (送料一錢)
京城光化門通
發行所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番

ClibPDF - www.fastio.com

大邱의 三製絲 會社에서 作業縮少
二百餘職工同時失業?
製絲原料인 고치不足으로 來九月부터 一齊實施

【대구】 잠견(蠶繭)의 특산지인 경북을 중심하야 대구(大邱)에 제사(製絲)의 왕국을 건설한 대구제사(大邱製絲), 편창(片倉)제사, 조선생사(朝鮮生絲)등 三제사회사는 극도의 잠견난에 빠저 제사의 원료인 고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는 九월一일부터 단축작업을 약一할가량 단축하기로 一제히 방침을 정하엿다 한다。

고치가 부족하게된 원인은 三제사회사가 위탁해서 사들인 잠견공동판매(共販)가격이 자유판매시장보다 매관에 六、七十전의 엄청난 차이가 잇어서 생산농민이 공동판매를 상대하지아니하고 자유시장에 팔아버린 까닭이라 한다。

이三제사회사의 남녀직공이 각八、九백명씩으로 합계 二천五六백명이나 되는데 감작이 단행하게되는 이작업단축문제로 말미암아 二백여직공의 실업자를 내게될형편이므로 一반직공들은 전전긍긍하고 잇다 한다。

이웃집男女欺瞞 八千餘圓을騙取
여러가지 수단으로 속여먹이
羅津署詐欺夫婦逮捕

【나진】 가지각색의수단으로 이웃집 부녀를 속이여 八천여원대금을 사기편취한 부부一쌍의 대사기사건이 함북나진(羅津)에 생겻다한다。

원적을 경남(慶南)에두고 나진 욱정(旭町)一○七번지에 살면서 만철의보이라고 계화부로잇는 추방동(秋芳東)은 작년여름부터 자기처 김여순(金如順)으로더부러 공모하고 이웃집 돈을 얻어쓰고 특별한 고리로 보상하는등 주(株)를모여 고리로해 탐하다는등 만철의 윤반을이용하야 폭리를취하다는등 여러가지 교묘한수단으로 이웃집녀의 돈을 편취하기 시작하엿는데 이것이 사술 누치빠른 모(某)X주(株主)의 눈에 발각되어 그로부터 어젯하던 끝에 이번이경찰의 귀에까지미치게되어 지난二일 오후三시부터 나진경찰서에 구인되어 엄중한 취조를받고잇는 가운데 피해자는 꼬리를 물고 뒤기하는데 피해액은 一천五백원과 이순희(李順姬)의 八백원을 위시하야 피해액은 八천八백여원 피해자는 무려수十명에 달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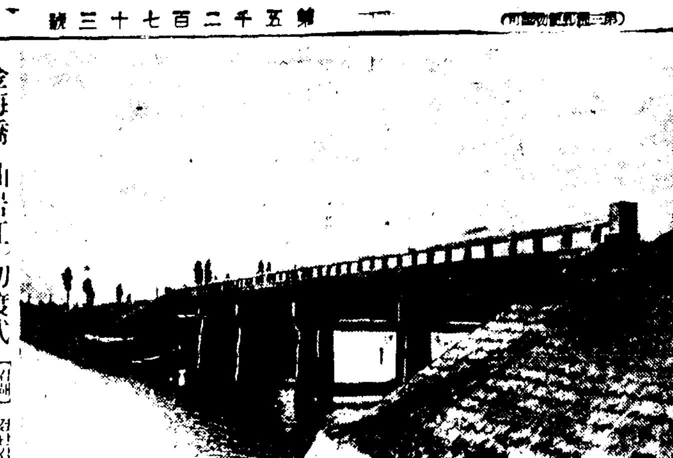
市場稅問題로 六十翁을毆打
進永市場稅徵收員이

【진영】 경남 진영시장 進永市場 세금징수인 송세룡(宋世龍)은 지난一일 진영시장에 나다니다가 세(稅)금을 받으러 금이 비싸다고 하다고 그만 불을 꾹지하고 六十노인을 구타한 일이 잇다 한다。

그 피해자는 부산 중도정(釜山中島町)三정목 七五번지 조문규(曹文奎)인바 그상세한 내용을 들어보면 전과 죽수인 송세룡이가 와서 장세 十二전을 달라하기로 이때까지 四전씩을 주엇는데 오늘은 어찌하야 十二전을 달라하느냐고 반문하엿드니 기어히 十二전을 내라하며 서로 설왕설래하다가 전기 송세룡은 첫말에 내지안는다고 구타를 감행하엿다 한다。

被害者趙文奎談 지금까지 四전씩 수튼 장세금을 오늘장은 별안간에 十二전을 달라하기로 전과같이 四전만 받아 가라고 하엿드니 사람말고 속히내라 하며 이러케 구타까지 당하고 적삼이 찢어졋습니다。 六十평생에 장사를 하다고 젊은사람으로 이러한일이 잇엇습니까 진영성은 아니엿드면 이러한 일이 없을까합니다。 운운

加害者宋世龍談 일반은 사실이니다 우금 시장세를 三전



金海橋(仙岩江)初渡式 【김해】 경남김해군(慶南金海郡)선암강(仙岩江)에 총공비六만원으로 철교를 가설중이라함은 본보에 이미 보도하엿거니와 七월三十일로써 준공을마치고 예정과같이 지난一일에 초도식(初渡式)을 성대히 거행하엿다한다。 (사진은초도식광경)

南道의 旱魃과 暴炎餘波

三百餘農民물싸움
旱魃中松汀水組區內에서
警察出動、겨우鎭壓

【송정】 백五十여일을 두고 사ー리를 사용하야서만 저당할수잇는 답을 짓는듯한 한발은 유독히 송정동면장록리(水制面長祿里)앞에 답지대에 심하야 一반 농작물은 다 가설하여슴이 가장 저전하다 거고사의하고 저지와되는 이때에 고 애원하엿으나 해수조 이사(理事)는 절대불응하얏으므로 一반 사인 송정서 송정수리조합 내무과에 들은 흥분하야 一시를 다투는 인 나주군평리보(羅州郡平里洑) 물을 밤서부터 수백이 분수되어 이때라고 상록리앞에 우물을 설 발동기(發動機)를 사용하야 도서히 이따고 발동기를 가설하라고한지 미답되므로 하반에서달린 동민들 수 지난三일에는 상갓보(上?洑)구 은 수리조합을 상대로 기왕 발동 여동민 아三백여명이 자기네의보 답에 피해보가 두려워하야 광주군동곡면(光州郡東谷面)서리를 대동하고 송정대치보어 一시대폭동을 이르겟다는데 결국은 평동면 성설관 수재소에서 소원전부가 출동하야 제지하엿으나 다맛 문제는 중대치 안엇으나 만일 불평은 송정수조 수이의 무책임 하다는것이라 한다。

焦熱地獄의 釜山에
每日消費氷二百噸
製氷業者들大活氣

【부산】 초열에 시달리는 해상 부산의 시민들은 근년에 맛보지 못하던 더위로 소나기나 한줄기 합사게 나리어 숨을 좀쉬게되엿으면 하면서 허덕허덕리고 잇다。 허덕이는 시민들은 사벽의 우아시쓰강은 얼음을 먹고 또먹어 얼음의 소비량은 전년에 비하야 배가되엿다。 부산제빙회사의 一일 배본의제조량과 제빙생활 회사의 七十돈 제조량의 얼음이 모자라는 형편으로 스피드에 스피드를 가하야 개량생산을 하나 그래도 부족한 상태이라 한다。 시내에서 소매가격은 작년一관에 八전 하든것이 요사이는 三전내지 五전으로 나리어 내량생산과 동시에 따매지 반위하에 내경생이라 한다。

暴炎에日射病
老僧이路死
몸세며 거울면에못가다
昌原郡上南驛前에서

【창원】 경남창원군상남(昌原郡上南)지방일대는 근래에 드문

無産兒救濟
原田校長特志

【여수】 일본내지인으로서 보통학교 교장으로 잇으면서 조선인 교육사업에 자기의 사재와 수입전부를 희생하다는 사람이 잇다。 본적을 복강현전천군(福岡縣田川郡)에둔 원전무지(原田茂之)씨는 최근까지 여수군(麗水郡)

居住地賣却을念慮
仁興里住民이陳情
◇뿌로카들이 활약하므로◇

【평양】 부내 인흥리(仁興里) 八十五번지 八十七번지 一대에거주하는 四十여호주는 김성연(金成連)과 조정완(曹正煥)량씨외 五인의대표위원을 선정하야 지난三일 아츰에 고모부윤(高橋府尹)에게 진정하바잇엇다는데 전기 八十五번지 八十九번지一대는 평양부(平壤府)에서 사용하든 우시장(牛市場)부속지로서 얼마전부터 매각설이 돌자토지뿌로커-들이 이일을 동리에 돌며 반입 부당에서 동지대를 뿌로커들에게방매하나면 부에는 이이될는지몰나도 그자리에 거주하고잇는四十여호는 생활에적지안은 타격이올 것이라하야 지난三일 오후七시경에 동리서재오(徐載五)씨집에 모여서 부당국에 진정할것을결의하엿다한다。

平壤에問題만흔借地件

차지(借地)에관한문제는 평양사회에 큰파동을 이르키고잇는만큼 부당국의 이에대한 태도여하는 一반의 주목이되리라한다。

不貞한乃妻를 食刀로刺殺
이웃사내와 부정한관계
白晝龍井市에血劇

【용정】 지난一일 오후四시경 용정 시내만주인시가 룡정(龍井)市街 용문교통 龍門橋通에서 일인사건이 잇엇다。 그내용을 들은 즉 대 하북성 (河北省)에 원적을 둔 이금해 李金海(?)는 처성씨(?)氏(?)가 이웃에 사는 봉천성 (奉天省)인 성문빈(?)이란 사람과 본부의 관계를 맺어 잇다는데 이는 평소 분개한 사정을 하고 몇번 처와싸우다가 분개하야 식칼로 찔러 부(?)에 타살하엿다 한다。 재판(?)에 사건을 치사하다 한다。

淳昌의大討伐

【순창】 전북순창군(淳昌郡)八덕면(八德面)에서는 자서(?)교통사고를 순창경찰서와 공동하야 八월月에 주(?) 방역에 청하야 一반쪽에서 현장조사와 사회를 돕기로 하엿는데 동면주재소 관내 영사부라민 소방수 약三백여명이 출동하야 사냥한결과 두마리를 잡엇다한다

讀者慰安 音樂과舞踊
本報宣川支局에서

【선천】 본사 선천지국(宣川支局)에서는 조선이나은 천재적 무용가 조택원(趙澤元)군을 초청하야 예독자위안으로서 남양무용과 (?)의음악을 오는十一일 선천회관 대강당(宣川會館大講堂)에서 개최하게되엇는바 조군은이미 경성(京城)에서 적대호평을 받은사계의 총아이며 조연의 지수방(陳壽芳)황인호(黃仁好)양양은 연주생중 수재인 만큼 인기를모우며 피아노、바이오린、첼노등명가수의출연으로 지금부터 인기의초점이되고 대성황을 예기하다고하는데 입장료는 대인五十전、학생 소아二十전등

趙澤元一行招聘

沙里院兩大建物
同日에定礎式

【사리원】 지난三일에 사리원 (沙里院)에서는 二대건축의 정초식(定礎式)을 一제이 거행하엿는데 오전十시에는 사리원읍사무소(沙里院邑事務所)건축정초식은 거행하바 총건평은 一백三十여평이고 건축비는 二만五천원으로 당점용이 하더이라고한다。 그러고 그날정오에는 사리원법원지청사(沙里院法院支廳)건축정초식이엇는데 그역시 거대한공사로 총건평은 二백七十九평가량이고 건축비는 三만一천원으로 지방법원 청사에 비하면 훨씬 뛰어나리 만한 건축이라는데 준공되면 대사리원건설에잇어서 모두 위관이 될만한건축이라한다。

郡農會書記가 三千圓橫領
안성군농회서기가횡령
警察取調後에送局

【안성】 안성군농회 (安城郡農會)서기 한연수 韓淵洙는 회계사무를 보든중에 농회비 一천九백여원을 횡령소비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곳 경찰의 취조를 받다가 지난 三일 필경 검사국으로 넘어갓다 한다。

消息

◇鈴木學氏 (榮州郡農會技手) 榮州郡勤務人事次 本報榮州支局來訪
◇鄭殷和氏 (榮州郡林會保主任) 新任 人事次로本社榮州支局來訪
◇尹相明氏 (江原道驛) 今般思期

●訂正申謹 貴報第五千二百五十九號 夕刊六面에 揭載된 咸安 에 赤痢와 紅疫。發病患者二百餘名과 死亡者五十餘名이라는 題目과 內容에 잇어서 死亡者 五、六名으로 相違되옴기 玆에 申請하오니 訂正하심을 바랍니다

七月二十五日 李龍石 上

永興産業組合 更生策講究
대표一명이도산업과방문
明紬販賣權을委任

【영흥】 영흥산업조합 (永興産業組合)은 명주의 판로를 구하고저 지난달二十九일에는 동소합장 박한영 (朴漢榮) 감사 정사영(鄭山永) 양씨가 도산업당국을 방문하고 그대책에대하야 여러가지로 응의한결과 대체의 성안를 보게되야 오는五일에는 도산업당국과 용재당국인 식산조야합회 하남지부에서 주최 영흥에 출장하야 실재사정을 조사하는 동시에 갱생계획에 대한 최후결정을 보게되리라 한다。

이제 그내용에대하야 모방면으로부터 전하는바에 의하면 그대책의 제一책으로 명주一수판매권을 조합에 위임하는 동시에 갱생재에대한 제一회 융재액은 四만원가량이라한다。

虎溪公普認可
聞慶은一面一校

【점촌】 경북 문경군 호계면 (聞慶郡虎溪面)은 교육기관이없어서 동면내 수백여 학령아동이 배움에 굶주리어 문맹을면치못하므로 면내유지 제씨와 면당국자들은 이에대하야 적극적운동한 결과 지난七월三十일부로 호계공보교(虎溪公普校)의 인가를 보게되어 마곡농촌진흥조합 집회소 (麻谷農村振興組合集會所)를가교사로 정하고 八월五일에 개교식을 거행한다는데 문경군내一면一교제는 일로부터 완성되엿다고 한다。

자는아이轢殺코 逃亡간三럭
더위로 다리우에서자다가
咸安署는犯人嚴探

【함안】 지난一일 오전一시경에 경남 함안군 군북면 시장통 (咸安郡郡北面市場通) 마산도로 (馬山道路)군북교(郡北橋)우에서 화물자동차가 그 다리 우에 누어 자고있는 아이의 무부 와 가슴 무참이도 숙여 노코 도망간 마산방면으로 향하엿다는 그 보고를 듣은 함안경찰에서는 서원 을 급히 자동차로 현장조사와 범인 을 추적하고 가방으로 수사중이 라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탐문한바 에 의하면 동면 조야리(中野里)의 장남 영욱(英旭)이가 너무나 낡아에 관해 피하 려고 그날밤에 더위를 피하야 다리 우에 잠을 자고 잇든것을 화물자동차가 지내간후 오에 참

不遠工事着手
長鬐里川堤防

【포항】 경북 영일군 장기면(迎日郡長鬐面)의 장령이란 읍내 천 川(?)이 높고 천답이 낮어서 홍수가에는 원인 이 적지안어 동재방이 속히 실현 되기를 요망하여 오든바 도비(道費) 九천六백五十원 면비 一천원 계一만六백五十원의 공비로 당편 착공하기로 되어 지방면(只杏面) 에서는 준비에 분망중이라 한 다。

南朝鮮蹴球
十三일순천서

【순천】 본보순천지국주최와 순천가단체 각신문지국후원으로 오는十三、四양일간 제一회 남조선 축구대회를 열게되어 경남북전남 하야 각처에서 참가단이만흔것을 예기하고 준비에분망중인바 특별 히 순천체육회축구단은 남조선에 서 우승컵을엇은지오래요 전조선 적으로 강팀으로 금번대회만은패 편에따라 사양할가 하다고한다。

避難中의饑馬 七名을咬傷
매어논 고삐끈코 뛰어다니며
新義州水害中發生事

【신의주】 부외 마전동 (麻田洞)주해시방에서 피난중이든 동四四 문치수 (文致周)씨소유의 마차말은 수해피란하지 아니하엿기 때문에 二일 오후六사경 고보일간 아무것도 먹이지 고삐를 끈코부 근에 잇든 소아(?)一명을 물고 표정에 매여잇든 사람 六명을 물어 처서는 입힌것을 떠부로 이를 잡으려는 사람 六명을 물어 하참동안 소동을 일으키엇다 한다。

洪原씨름大會

【홍원】 함남 홍원(洪原)시민一동의 주최로 동하려인 七월 七석을 이용하야 三일간 (음七、八、九日)씨름과 자전차 경기대회를 본보및 소방조 체육회의 양지국의 후원으로 방금 성대히 준비중이라는데 인 반은 대성황을 예기하다고 한다。

택시料引下에 當業者反對

【군산】 군산(群山)시내 택시 요금이 다른도시보다 오히려비싸게 七十錢을받는다고 여론이 시내각도로가 포장공사까지 된후라 전북도 보안과에서는 종래七十전을 五十전으로 인하하여도 손해는 안볼것이라하야 장차인하시킬 방침에있는 모씨는 당국에서 가만하여손다면 대중료금으로 五十전을받는다고하는데 과연 도보 안당국의방침이 어떠하는지 一반 시민은 대단히 주목중이라고 한다。

오리씩 받앗으나 四년전부터 四전씩을 받게되엿는데 그날장에는 자리도 넓게잡어 三평가량이 되니 十二전을 내라한즉 전과같이 四전밖에 아니줄라고 하여 결국 그와같이 된것입니다。운운

羅津埠頭倉庫
十一월준공예정

【나진】 나진항(羅津港)부두창고는 五천六백十三평방미돌의 기공사가 이미 삼목합자(三木合資)에 청부되어 현재 착착 진행중 오는 十一월말부가 영업 개시 하는 그와이 준공하리라 한다。 이어 대체의 공비는 十九만 五천원으로 이안에 부두가 사무소 를 설치하야 영업을 개시 하리라 하며 부두사무소는 四층철근콩크리트와 연와혼조로 공비약五十만원을 요하는데 오는 九월에 착공 하야명년 九월까지에 준공하리라 한다。

이밖에 나진역(驛)과관고 화물상고등 十여종의 주요공사도 점차 완성에 가까워오는바 본년부에 나간 대체의 금액은 二백十만여원정도라 한다。

七十婆姊妹 鐵橋에서轢死
기차오는것을 피치못하고
三日价川鐵橋上慘變

【개천】 지난 三일 오후七시二十분경에 만포선(滿浦線) 개천역(价川驛)과천동역(泉洞驛)사이에잇는 개천철교(价川鐵橋)에서는 열차 七十노파 형제가 진행하는 열차에 치어 무참히 즉사한사건이 발생하엿다는바 사실을 듣건대 개천군 개천면 마장리 (价川郡价川面馬場里)이하배(李夏伯)의 모친 현씨(玄氏)와 동군 조양면용현리(朝陽面龍峴里)김재현 (金在顯)의 모친 현씨(玄氏)는 결제간으로서 박날행사을 하든동지 난三일이 개천장날이므로 개천에 와서 잔화를 사가지고 송으로 평양행 급행열차가 마침 평양발 히천행 제八一三호 열차에 치여 죽은것이라 는바 시체는 각각 유족들에게 내여 주엇다 한다。

信興校增築
一반동정으로

【강동】 평남 강동군 원탄면 표대리 (江東郡元灘面表垈里)자

酌婦生活悲觀 兩女自殺

【도문】 지난一일오후七시十分경 하삼의 묘령녀성이 두만강(豆滿江)에 몸을던저 자살한사실이잇다는데 이제 그자세한사정을 듣건대 그들은 보두도문구시가 (圖們舊市街)의 조선요리집에서 기생노릇을하는 김복수(金福珠)와 김은주(金銀珠)의 양인으로 남달리 태워난 운명을 저주하며 극도로 세상을비관한 남어지에 차라리 죽 는것이나을것이라 생각하고 근一년간 거러온 화류계생활을유유히 흐 르는두만강에 몸을던저 죽엄으로 로산하엿다한다。

私立信興學校

사립신흥학교 (私立信興學校)는 三十여년이래 사을 가지고 꾸준이 반 흔 영재를 배양하는 유一한 농촌 학교로 현재 생도가 一백五、六十 명에 달하며 압으로 양양한 기세 로 날로 발전하는 기세로 장차 큰 기대를 가지고 학교당국자들 은 열신이 경영하는바 신교사인 협착하야 증축을 하기로 一반의 부형과 유지의 동정으로 六백여 원을 들이어 요사이 낙성을 하엿 다는데 앞으로 크게 신축할 예정 이라 한다。

釜山에火災 三棟三戶燒失
안전자동차부에서 발화
損害額一千五百圓

【부산】 지난三일오후四시四十분 부내 영수정(瀛州町) 안전자동차부(安全自動車部)에서발화하야 삽시간에 三동三호를소실시키고 五시에 진화되엇는데원인은자동차에 휘발유를 너코잇는데 그뒤편에서 화로에 불을부치고잇어 그불이 휘발유에 점화된것이라하며 손해는 一천五백원 가량된다고 한다。

아입보험자(東亞火災保險)二十전이라고한다。

二名轢死

【회령】 지난二일 오후一시十분 회령(會寧)발 상삼봉 (上三峯)행 제二○九호 열차가 회령서 약三十키로지점을진행하든도중에 현주소를 종성군 시천역전 (鍾城郡新川驛前)에 둔 김기주(金基周)와 한동리에 사는 박린동(朴璘東)두농부는 그날 술이 만취하야 그곳 선로(線路)를 목침으로 베고 곤히잠을자다가 기차오는줄도 모르고 열차에치어서즉사하엿다 한다

卅餘戶의빠락에 撤去를命令
철도용지에서 집지엇다고
二百餘名死活問題

【길주】 길에선양수역(吉州線陽水驛)부근철도용지내에는 지금까 지 노동자들이 三十여호의 노점 을 건축하고 노변에서 지내는바 지난 三十일 돌연 배안보선구에 서는 불일내로 이 노점에서 철퇴 하라고 명하엿다는바 二백여명의 주민들은 생로를 잃게되엿음으로 대표八명을 선정하야 함수주재소 에 이사실을 호소하엿는바 보선 구에 진정하여 보라는 간단한 처 결은 지여 버렷다는데 一반을 二 백여명의 사활문제인 만치 그결 과가 매우 주목된다고 한다。

出獄하자도적질

송학(?)면 월파리 (?)의 김상덕 (金相德)은 지난 七월二十八 일에 개성소년형무소 (開城少年刑 務所)를 출옥하후 즉시 부내봉래 정 (蓬萊町)一정목 五十一번지 한 상근 (韓相根)과 공모하고 一일 오후 二시경에는 관철동 (貫鐵洞)三三三번지 동아리발관 (東亞理髮館)에 침입하야 현금 七十여원을 절취하엿으며 각처에서 수백원을 절취한 사실이 탄로되어 종로서에게 체포되어 방금 엄중한 취조를 받고잇다 한다。

지 一주일이 못되어 또 도적질하다

먼동이틀때 (1)
作 李無影
畵 李青駒

交叉點 (1)

「제 애긴 끝낫으니까 인저 선생님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네 ?」

이야기를 하는동안에 저도 모르게 떠어논 자리가 치마폭에 수북하다。 속삭은 풋나물 손꾸듯 차디찬 손꾸고 앉엇다가 갑작이 청년의 옆으로 바싹 다아앉는다

「그러시죠?네?」

「……」

「그러데 왜 이리 잠잠코만 계시까?제 아까 제얘기가 끝나면 대답을 하다고 그러지 안흐셧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리워진 청년은 그저 잠잠코 잇을뿐이다。

「그래두 그러구 계시는군ㅡ!」

복실복실하게 생긴 여자는 입을 뚜렷이 나타난다 삼아젓다。

「선생님오해하시면안됩니다。」하고 여자는 빵을뚝뚝이하며

「전 빗장이는 아니니까요。선생님이 싫으시다면 그만이지요。싫으시다는것을 속일지는 바 루바르직르른것은 아닙니다。다만 좋튼 글튼 대답만 이라도 해주소사는 것이지요。」

청년은 또다시 여자의 얼굴을 버언이 쳐다본다。 아까에는 금시 에 무슨말을할것같이 입은저리에 굵다란 울음을 지어보이더니 다 시 흐어진 성격으로 고개를 돌리 키고 그맘편자같은 구두뒤ㅅ굽으 로 잔디밭을 쿡쿡쥬이고잇다。 그 리더니 일진하다는말이

「아주 봄이군ー」

할뿐 또다시 멋멋하게 입을 담은다。

갑갑지안케 짜증을 벌컥내듯 눈초리를 깨긋하고는 팍 돌이저서 또다시 죄없는 잔디만 바닥바닥 쥐어뜯는다。 그리더니 여자는 끝

「에ー착하지ー놓고 어머니가 어린것을 달랠때의 말소리처럼 부드럽게 뀌친다。

「호호호호 네、참 어째면 저러실까?」

청년은 어디?하는듯이 넌즛이 고개를 돌리켜 여자의 얼굴을 빠안히 드려다볼뿐 역시 아모말도 없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이십니까? 참 김선생님 답지도 못하시군!」

예ー스면 예ー스、노ー면 노ー해산에어른답게 대답을 못하시고、저러케 우물쭈물 하십니까요?」

이러케 다구지게 대드는 여자의 얼굴을 청년은 처다보고만 잇던 청년은— 빙긋 미소를 띄우고 또 그저 상그레 웃어보이기만한다。

여자의 입맛다나 청년은 그러케 수집어보이지는 안는다。 떡버러진 가슴에 굵다란 폐모테 안경이 주는 인상만으로도 그는 결코 조고만일을 가지고 피약피약되노일 그런사람같지는 안햇다。

그러타고 일부러 흥금을 떨고 안젓는것같지도안타。「죄로 만든 부상인형」을 인상을주는 볼편한 얼굴에는 가끔난처해하는 빛이 그것이라고 얇아 보수엿으리만큼

청인의 「봄노리」에여자도 무심하게 잇것지마는 고개를들어본다 은저리만 남은성들들에 참미꽃 한송이가 청승맞게피어잇다。 언제드 론나 봄다운 산새소리가 째째 두어번나다가 그친다。

안온한 정밀、판판한 잔디밭。

솔새밖에는 꺼리낌 아무것도없는 자연속에 두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잇으면서도 여자의 표정은 그지없이 편편치 안아보인다。 바늘방석에 앉은것처럼 초조해하는 빛이 옷아그 얼굴에는 나타나다。

이윽고 청년은 뻐언히 다리한쪽을 세우고 벗어노앗던 바바리 갓두머니에서 마코갑을꺼낸다。 내뿜는다처녀의 입김처럼 후끗한 봄바람이 맑안연기를 동어리틀 기다렷다는듯이 풀어헤친다。 청년은 다시하품을。 그러고 또 한목음……。

답답한개가 거의 다 타기를 기다리어 청년은 궁초를 발밑에 너코 쓱쓱 부벼더니 어지러운 시선으로 여자의 약간 초라해진듯한 얼골을 넘오이 나려다 보다가

「숙정씨ー!」

하고 비롯고 입을연다。

「네ーㅇ。」

아조 아모러치도 안타는듯 발소리를 꾸미기는해도 청년을 처다보는 여자의 눈초리에는 평풍한 기장미가 떠돈다。

染色洗濯講習會

◇時日 八月七日부터九日까지
◇場所 咸興永信普通學校校舍
◇主催 東亞日報社咸興支局
◇後援 咸興메니스트會

ClibPDF - www.fastio.com

經濟的으로본에치오피아

鐵物類는 獨逸이獨占

陶器는日本製品이獨占

(一二)石油 同國에는 지레나 國際民地、米國、英國等에서 輸入하는데 [illegible] 普通되지아니하야 아베바에서도 官廳、大官邸、諸外國公使館、病院、호텔、大商館等에 [illegible] 一九三〇年의 一、七八三噸에서 一九三四年에는 四 [illegible]

(一三)自動車及附屬品 [illegible]

(一四)酒類 [illegible]

(一五)石鹼 [illegible]

(一六)煙草及석양 [illegible]

(一七)香料 [illegible]

(一八)陶器硝子 [illegible] 陶器는 에치오피아에서 만히쓴다。[illegible]

(一九)雷管品 [illegible]

(二〇)其他 [illegible] (終)

熱狂的金鑛熱 整理時代로轉換

利權目標의出願은當局이禁止

小資本經營도不可能

朝鮮內의 鑛業權의 出願은 依然增加傾向에있어 今年一月로부터 六月까지의 新規出願은 六千六百二十一件에 達하야 昨年中의 九千四百四十七件에 對하야 半年에 이미 그七割에 達하고있다 [illegible]

[illegible] 그러고 從來 小資本의 經營에 依하는것이 만흔 朝鮮鑛山은 漸次 大資本下에 合理的經營을 하지아니하면 到底히 經營할수없는 傾向도 보인다 [illegible] 九月上旬頃부터 本格的編成이 [illegible] 으로보인다

夏秋繭基準

—廿四掛豫想—

明和十年度夏秋繭基準價格協定은 八月下旬乃至九月初旬에 總督府에서 蠶絲會及各道代表間에 協定되는데 [illegible] 廿四掛程度를 豫想하고있다 [illegible]

抗木用材의 增産을研究

[illegible]

明年度豫算에 産業開發費計上

茂山鐵鑛開發費等

九月下旬本格的審議

【東京電話】 拓務省에서는 [illegible]

運賃問題의 放任은不可

橋本鮮航會長談

[illegible]

夏日經濟線

[illegible]

機數計

[illegible]

軟調弱含

當分保合乎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減配와市場觀

이기는雙方對立

[illegible]

今日의市況 八月五日

株式	正米

時勢와市況

株式 商勢

不味

前場弱保

[illegible]

後場同調

[illegible]

財海餘波

[illegible]

辰馬汽船 解傭低下

[illegible]

期米 商狀

强調

前場反高

[illegible]

後場續高

[illegible]

當中日은好轉

[illegible]

當然한反撥高

[illegible]

米豆餘墨

[illegible]

朝取短期前場步調

[illegible]

朝取短期後場步調

[illegible]

實物賣買價前場

[illegible]

正米 各地商況

堂島前場情報

京城强含

仁川堅調

南浦不動

釜山閑況

大邱保合

群山正米

木浦堅含

[illegible]

內外金銀時勢 (八月五日)

海外金銀 [illegible]

東京金銀 [illegible]

京城金銀 [illegible]

各限俵合

[illegible]

海外經濟

[illegible]

金融

[illegible]

商品

[illegible]

株式

[illegible]

期米

[illegible]

正米

[illegible]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 電話長 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仁川期米 劉康益夏商店
京城株式 劉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黃金町

ClibPDF - www.fastio.com